

# 광주·전남 의원들 주류 3·비주류 11·중립 2명

### 위기의 새정치 기로에 선 호남 의원들 선택은

## 대부분 文대표 사퇴·총선전 통합지도부 의전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진영의 정면충돌로 분당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성향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일단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주류 진영으로는 강기정, 우윤근 의원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측의 당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범주류 성향의 김성곤 의원은 20대 총선 호남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비주류 진영 핵심으로는 주승용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간 지대에 머물렀던 지역 의원들도 정치적 선택에 나서고 있다. 당장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과 장병만 새정치연합 예결위원장, 김영록 대변인, 이윤석 조직본부장 등이 구당모임에 참여하며 당의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표의 사퇴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비주류 진영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 계보의 이계호

의원과 김한길 전 공동대표 측의 권은희 의원, 임내현 의원도 비주류 진영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86(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그룹의 김승남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주류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권력을 친노 진영이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은 낮에는 주류, 밤에는 비주류의 '눈치 보기'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일부 강경 주류 성향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당내 통합을 위해 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전 공동대표도 대결보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내년 총선 이전에 통합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안의 정면충돌은 결국 분

당을 부를 수밖에 없고 친노·주류 진영에 비판적인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탈당 등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별명은 공멸'이라는 지역 정서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현 시점에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너무 부담이 크다"며 "결국 당내 주류인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새정치연합과 야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자리에 모인 '민집모'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의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연합뉴스

김영환·신학용·황주홍·유성엽·노웅래·문병호·김동철·김영록·이윤석·장병만 의원.

## '발등의 불' 선거구 획정...여야는 줄다리지만

### 與 "비례대표 의석 연동제 불가"...野 "과반 의석 욕심 버려야"

여야가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후보자 예비등록(12월 15일) 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신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가 현역 의원들에 비해 떨어지는 열약한 여권에게 자신이 뛰어날 할 운동장인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유효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권역별 비례 지역연동제 등은 현행 권력구조와 안 맞아서 새누리당이 도저히 타협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인구비율만 보면 농어촌 지역이 불리한데 지역 대표성 감안할 때 이들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고 지역구 수 변화는 만큼 비례대표 조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야당은 당리당략적 선거구 제도를 계속 들고왔다"며 "이는 100미터 달리기하는데 10미터 앞에서 달리겠다는 때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 혼란은 회담 중 무책임하게 자리 박차고 나간 새정치연합에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맞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욕심이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한다"며 "이병석 중재안으로 의견 모아지는 듯했는데 비례성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새누리당이 (전날 회동에) 반손으로 와서 자기 당 중재안조차 견어했다"며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아무런 대안없이 오직 19대처럼 42% 정당 투표로 과반의석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며 "이번엔 정외대 개입이 없었길 바란다. 비례성 강화 전제된다면 그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의석 조정 검토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남재 전남도 정부특보 사퇴

### 광주 북구를 총선 출마 준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한 이남재 전남도 정부특보보좌관(48·사진)이 7일 사퇴했다. 이 전 정부특보는 내년 20대 총선에 광주 북구(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정부특보는 "지역주의에 기대고 기득권에 쫓기는 정치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서 소신 정치, 정책과 노선을 견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정부특보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시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사제 성 강화 전제된다면 그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의석 조정 검토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野평가위, 현역 의원 평가 세척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이하 평가위)의 시행세칙 배정을 인준하고 최고위원 공석시 중앙위에서 선출토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 주류 진영의 밀어붙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의 시행세칙 평가항목별 배정을 확정했다.

평가위가 마련한 배정안에 따르면 의정활동·공약이행 항목은 임법성과 10.5%, 성실도 7%, 기여도 7%, 국정감사 평가 3.5%, 공약이행평가 7% 비율로 반영된다.

선거 기여도는 2012년 총선 비례득표율·2014년 광역 비례득표율 비교 3%, 2010년과 2014년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결과 비교 각각 3%, 지역구 내 기초의원 당선 현황 1%다.

지역 활동은 조직실적 2%, 운영실적 4%, 민생복지활동 4%이며,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 8%, 당직자 평가 2%로 구성됐다.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비지도도 21%, 후보자 지지도·정당 지지도 14%로 구성됐다.

최고위는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석일 경우 중앙위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오영식 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주승용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중앙위에서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고위 의결은 비주류의 주승용 최고위원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불참, 주류 측의 밀어붙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공천 싸움 2라운드

### 총선 결선투표제 도입...를 놓고 대결

새누리당은 내년 4·13 총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7일 확정했다. 또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김무성 대표와 서정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은 뒤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결선투표제의 세부 운용 방식은 특별기구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5대 5로 대등하게 돼 있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후보자 선출 참여 비율도 일반 국민 비율을 다소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대표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김 대표와 진박(진박근)계가 공천 룰에 한발짝씩 양보를 하면서 두 달 넘게 끌어온 공천 특별기구 발족이 성사됐다. 김 대표는 국민참여 비율을 상향했고 진박계는 결선투표 도입을 관철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세부 결정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국민참여비율 상향을 놓고도 물밑에서는 해석이 판이하다. 결선투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장 결선투표제 대상을 누구로 정할지가 쟁점이다. 일각에선 본선 투표 결과 1위 후보가 과반득표한 경우에만 결선투표 실시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1위 후보가 2위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이기면 결선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등 기준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소집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30일간 열린다.

새누리당은 7일 단독으로 연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집요구서 접수 직후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